

# 강원권 고전적(古典籍)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Digital Archives of Classical Materials in the Gangwon Region

정용건\*\*

**국문요약** 21세기 들어 고전적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이는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앙 중심의 자료 집적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지역 문화 진흥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역 주도의 아카이브 구축 작업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원 역시 이와 같은 경향에 발맞추어 지역의 고전적(古典籍)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강원대학교 국학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수행한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구축 사업, 울곡국학진흥원에서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강원한국학 아카이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전까지 '강원'이라는 이름 하에 발굴·정리되지 못하였던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의를 지닌다.

다만 시간, 자원,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에 대한 고도의 가공 단계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자료 구축의 내실화', '체계성', '확장성'의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아울러, 그러한 연구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강원 지역 내 자체적인 고전 인력 양성 기관·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핵심어** 강원권 고전적(古典籍), 디지털 아카이브,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울곡국학진흥원, 한국학자료센터, 강원한국학아카이브.

- 차례**
1. 들어가며
  2. 강원권 고전적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현황
  3. 타 기관 사례 분석 및 향후 과제
  4. 나가며

공을 거둔 이래, 고전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DB로 구축하는 사업이 인문학 각 영역에서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1999),<sup>1</sup> 한국고전번역원(舊 민족문화추진회)의 <한국고전종합DB>(2001),<sup>2</sup>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문헌종합목록(舊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2005),<sup>3</sup>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센터>(2008)<sup>4</sup> 등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여러 웹 DB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고전적을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제, 텍스트, 번역까지 아울러 살펴볼 수 있도록

## 1. 들어가며

1995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하여 CD-ROM의 형태로 담아내는 작업이 성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6B5A02004128)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3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www.nl.go.kr/korcis)

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kostma.aks.ac.kr)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된 결과, 관련 교육 및 연구 성과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음은 물론 일반 대중의 자료 접근성 또한 크게 증대될 수 있었다. 나아가, DB에 올라 있는 텍스트들은 근래의 AI 분석 및 자동 번역에 있어 중요 기초 자료로서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 고전적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제 점차 옛일이 되어가고 있다.

현대 기술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고전 영역에까지 이와 같은 ‘디지털 혁신’의 바람이 불어닥침에 따라, 2010년대에는 고전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이 중앙을 넘어 각 지역 차원에서 왕성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주도로 수행된 ‘한국학기초자료사업(권역별 한국학자료센터 구축 사업)’을 비롯하여,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조성한 ‘유교넷’, 광주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호남국학종합DB’, 충남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충청국학디지털아카이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아카이브 구축은 중앙 차원에서 모두 파악·정리하기 어려운 지역 자료의 집적·가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들은 연구·번역, 콘텐츠 개발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강원 지역은 그러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해 오고 있는가? 강원권 역시 다른 곳에 못지 않게 지역에서 산생된 고전적을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축적해 온 만큼, 이들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래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고전적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을 확인하고, 그 의의 및 한계, 향후 과제 등을 아울러 살펴 보고자 한다.

## 2. 강원권 고전적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현황

고전적 구축 작업의 초기에 해당하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서울대학교 규장각,<sup>5</sup>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sup>6</sup> 등 대규모 중앙 집적형 DB가 디지털 아카이브의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 시기 강원권의 고전적은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개별 검색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는 기초적인 자료 탐색 및 확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도움이 되었으나, 수많은 자료 가운데 강원과 관련된 것을 따로 선별해 내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에서 미처 수집하지 못한 의미 있는 지역 자료들은 이들 DB를 통해 살피기 어렵다는 한계 역시 존재하였다.

그렇기에 2010년대 이후에는 지역 자체적으로 고전적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빙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자료 집적의 주체가 ‘중앙’에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작업은 지역의 주요 대학 및 연구소, 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강원권 고전적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성과는 크게 둘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 2.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강원권 고전적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성과로서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의 사례이다.<sup>7</sup>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고전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하고 표준화된 형

5 서울대 <규장각>(kyu.snu.ac.kr)

6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jsg.aks.ac.kr)

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cksm.kangwon.ac.kr)

식으로 가공·집적하여 한국학 지식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각 권역별 연구소를 선정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규장각 국가전적자료센터(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장서각 국가전적자료센터(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한국학진흥원), 호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강원권역 한국학자료센터(강원대 국학연구소), 해외권역 한국학자료센터(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등 총 6개 센터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 권역을 대상으로 한 아카이빙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중 강원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센터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년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강원권역은 이들보다는 다소 늦은 2015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2021년까지 총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였다.<sup>8</sup>

강원권역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의 수행 주체는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고문서연구센터(현 강원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소)<sup>9</sup>였다. 주로 강원대 사학과 전공자들로 구성된 이 연구팀에서는 ①강원지역에 산재한 고문서·고서의 체계적인 수집·정리 ②유형별·주제별에 따른 표준화된 형식의 한국학 지식콘텐츠 생산 ③지역 고문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콘텐츠 개발·제공 ④웹서비스의 실시를 통한 학술적·교육적 활용 기반 및 학술인프라 조성이라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료 수집 및 정리, 해제, 이미지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 해당하는 ‘고문서 조사·연구’에서는 고문서 및 고서의 실측, 서지 정보의 파악, 디지털 이미지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2단계인 ‘DB구축 및 웹서비스’에서는 수집 정리된 자료를 웹사이트에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어 3단계에서는 특화콘텐츠로

서 ‘인물과 생활’, ‘경제 및 소통’, ‘학문과 교유’ 등의 분야로 나누어 고전적 자료를 분류·제시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연구내용’

이와 같은 사업 수행의 결과,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삼척 삼척시립박물관, 강원대 중앙박물관, 춘천 신승겸 기념관 등의 박물관·기념관, 각 시군에 소재한 문화원 및 향교, 지역의 고가(古家) 등 100여 개의 소장처에서 3,488건에 달하는 고문서·고서를 조사,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빙할 수 있었다. 해당 자료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cksm.kangwon.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연구팀에서 조사한 모든 자료의 이미지 및 텍스트가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 해제 역시 상세히 작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해당 자료의 개요를 손쉽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들 자료를 ‘유형’, ‘주제’, ‘작성지역’, ‘소장지역’ 등의 디렉토리로 분류해 제시함으로써, 자료의 성격을 보다 용이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고전 자료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강원권역의 고전적을 본격적으로 조사·정리하여 제시한 최초의 성과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의를 지닌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고전적을 다수 발굴하였음은 물론, 강원 지역 자료가 품고 있는 고유의 특징적 면모 역시 새로이 발견해 낼 수 있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여러 건의 연구 성과를 도출

8 황은영, 「강원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 사업의 현황과 제언」, 『강원사학』 36, 강원사학회, 2021, 3~5쪽.

9 해당 사업은 본래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고문서연구센터에서 주주하였으나, 2020년 강원대학교 부설 국학연구소가 설립되고 해당 센터의 기능이 국학연구소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 주체 역시 국학연구소로 전환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cksm.kangwon.ac.kr)

하고 신진 인력을 다수 양성해 낸 것 또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sup>10</sup>

다만 6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수행된 사업이다 보니, 자료 집적이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연구팀 자체 진단에 따르면, 본래 전체 사업 과정에서 조사·확보한 자료는 50,000여 건을 상회하나 이미지로 최종 수집·정리한 것은 6.9%에 해당하는 3,488건에 그치고 말았다고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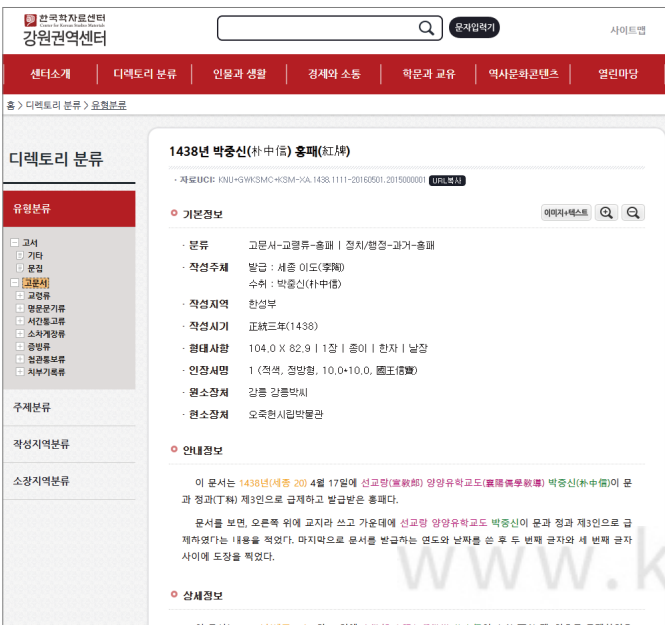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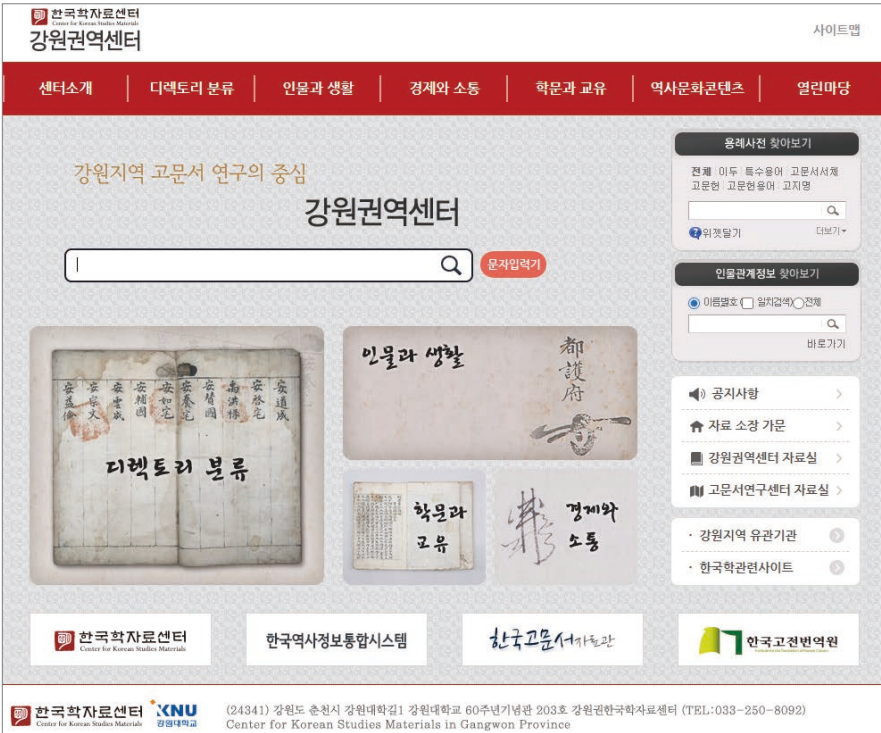
다.<sup>11</sup> 전체 수집 자료 대비 DB화한 자료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강원권역에 잠재되어 있는 자료의 양을 생각해 볼 때 수량의 측면에서도 아쉬운 지점이 있다.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한계로 이야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DB에서는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해제, 탈초, 텍스트화 작업까지는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별 번역까지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한문 고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비전공자는 해당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학 전공자가 주축을 이루는 고문서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사업인 관계로, 전체적인 자료가 고서보다는 고문서 위주로 수집·정리된 경향이 있다. 실제로 조사된 자료의 유형을 살펴보면, 고문서(교령·호적·가계기록류 등)는 3,476건에 달하는 반면 고서(문집·실기류)는 단 12건에 그치고 있다. 현전 자료의 비율로 볼 때 고서보다는 고문서 쪽의 수량이 아무래도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

10 강원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산출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황은영, 앞의 논문, 18~22쪽 참조.

11 황은영, 앞의 논문, 5~15쪽.



안하더라도, 조사한 고서의 수가 12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이미 종료된 터라 추가적인 사업이 개시되지 않는 한 DB 보완 및 고도화 작업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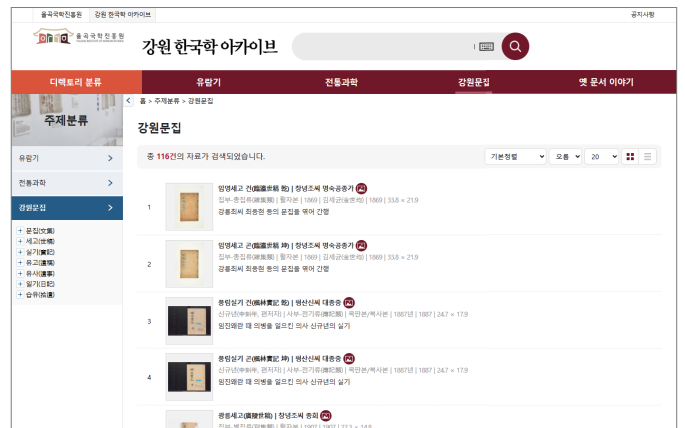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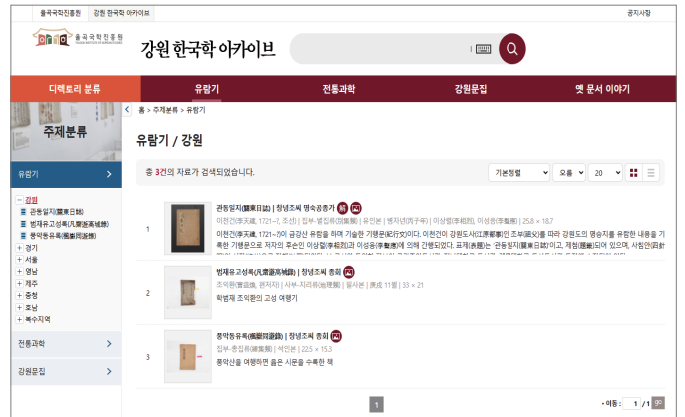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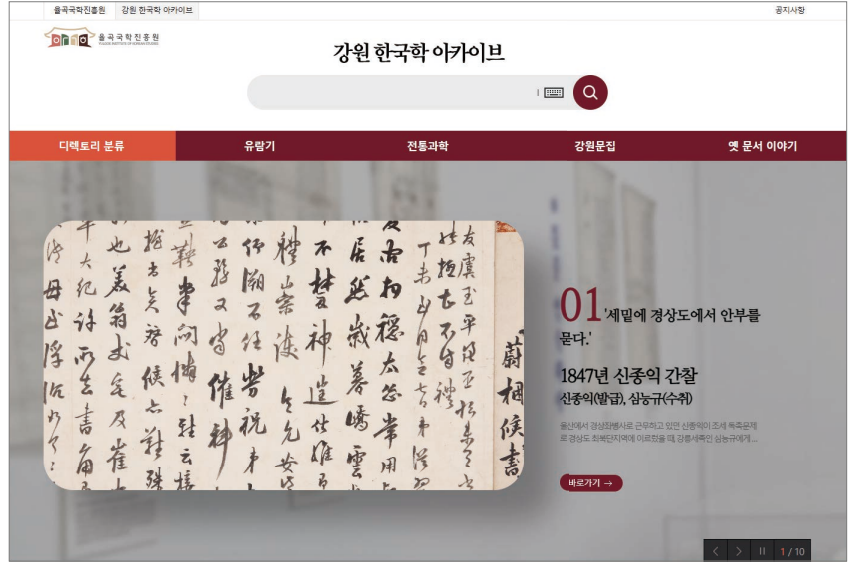
### 2.2. 울곡국학진흥원

#### <강원한국학아카이브>

다음으로 언급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과는, 울곡국학진흥원(구 울곡연구원)에서 구축한 <강원한국학아카이브>의 사례이다.<sup>12</sup>

강원한국학아카이브는 강원도 강릉의 울곡연구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20년부터 진행해 온 강원국학진흥사업의 성과를 집적한 것으로, 2024년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강원권의 고자료와 근현대자료를 수집하여, 그 이미지 및 해제를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 ‘수집 → 1차 정리(간략해제 및 목록화) → 이미지 촬영 → 2차 정리(세부 목록화) → 탑재 → 해제 → 검수 → 재수정’의 단계를 거치고, 2차 정리가 끝난 자료를 해당 아카이브에 소개한다. 2024년 8월 기준 해제를 마친 자료는 약 2,000건, 검수까지 완료한 자료는 약 1,500건이며, 추후 지속적인 작업을 거쳐 3~4년 뒤에는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해 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sup>13</sup>

현재 아카이브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는 총 31,509건에 달한다.<sup>14</sup> 해당 DB에서는 이를 ‘고문서’, ‘고전적’, ‘유물’, ‘근현대문서’, ‘근현대전적’으로 분류해 제시하고, ‘유람기’, ‘전통과학’, ‘강원문집’ 등의 탭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



울곡국학진흥원 <강원한국학아카이브>(db.yulgok.or.kr)

들 자료를 테마에 맞게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람의 명소로 일컬어져 온 강원 지역의 특색에 걸맞게 ‘유람기’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둔 것이 눈에 띄며, ‘강원문집’ 탭에서 116건에 이르는 서적을 소개해 두고 있는 것 또한 의미 있다. 울곡국학진흥원에서는 향후 e-Book 시스템, 데이터 시각화, 지역 유력 문중의 족보를 전산화하는 보학(譜學) 시스템 등 세 가지 기능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

12 울곡국학진흥원 <강원한국학아카이브>(db.yulgok.or.kr)  
13 울곡국학연구원 강원한국학아카이브 공지사항 「서비스 개시」(https://db.yulgok.or.kr/board/notice/view?id=11&clsType=%EC%95%8C%EB%A6%BC%EB%A7%88%EB%8B%B9\_%EA%B3%B5%EC%A7%80%EC%82%AC%ED%95%AD&used=Y)  
14 2025년 10월 기준.

을 세우고 있다.<sup>15</sup>

이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수량 측면에서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의 성과를 크게 뛰어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 사업에서 미처 포착·수용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을 대거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고전적뿐 아니라 근현대 자료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강원권 자료 외에 타 지역에서 산출된 자료라도 강원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면 수록해 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무엇보다 울곡국학진흥원은 강릉시의 지원을 받아 2025년 9월 ‘울곡문화원’에서 ‘울곡국학진흥원’으로 확대 출범한 만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카이브의 지속적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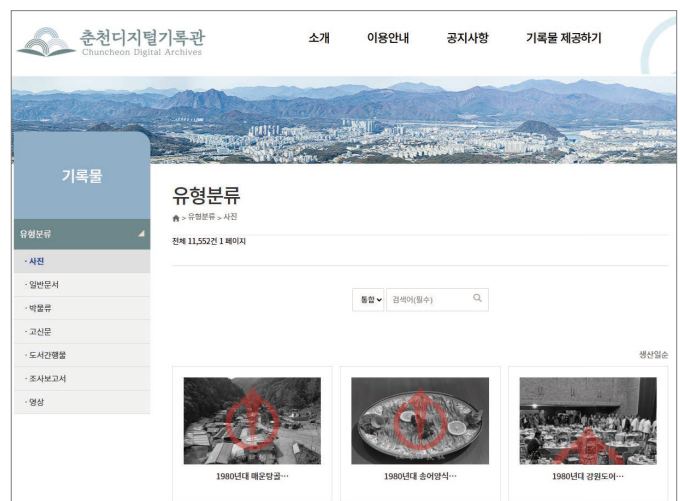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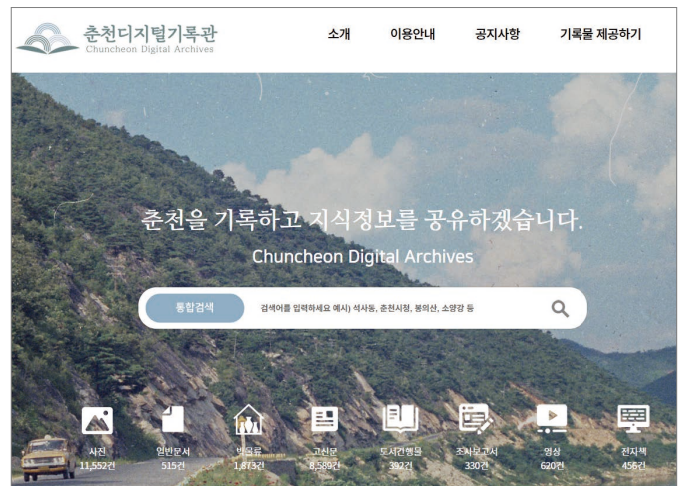
### 2.3. 기타: 강원학연구센터 및 문화원 주도의 아카이브 사업

이상과 같은 대규모 작업과는 별개로, 강원 소재 각 연구소 및 문화원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집적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저마다 특색 있는 디지털 아카이빙을 추진·수행해 오고 있다. 이들은 비록 고전적이 아닌 근현대 자료를 주된 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지역 아카이브의 동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해 볼 만하다.

2018년 개소한 강원학연구센터<sup>16</sup>에서는 강원 지역에서 산생된 여러 자료를 한데 모아 집적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강원학아카이브’의 신규 구축 계획을 세우고 있다.<sup>17</sup>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아카이브>,<sup>18</sup> 공주대 공주학연구

원 <공주학아카이브>,<sup>19</sup>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아카이브><sup>20</sup> 등 타 지역 기관에서 수행한 사례를 두루 참고하여, 체계적·단계적 구축 전략을 세워 두고 있다.<sup>21</sup> 다만 이는 아직 구상 및 추진 단계에 있을 뿐 실제 서비스 개시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춘천문화원에서는 사이트 내에 ‘춘천디지털기록관’이라는 웹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여 춘천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up>22</sup>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만든 이 아카이브는, 춘천 관내 각 기관 및



춘천문화원 <춘천디지털기록관>(cc-archives.or.kr)

15 울곡국학진흥원 보도자료 「강원 한국학 아카이브 서비스 개시 (08.01)」 ([http://www.yulgok.or.kr/bbs/board.php?bo\\_table=press&wr\\_id=57&page=3](http://www.yulgok.or.kr/bbs/board.php?bo_table=press&wr_id=57&page=3))

16 강원학연구센터는 90년대 중후반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시행 및 전국 각지의 지역학 연구기관 설립 흐름에 따라 2002년 만들어졌으나, 관심 및 지원 부족으로 2010년 폐소되었다. 이후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연구센터의 재건립 요구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2018년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17 강원학연구센터 <강원학아카이브> (<http://www.gangwonstudies.re.kr/portal/achievement/achievement01/boardList>)

18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아카이브> ([www.jst.re.kr/jejustudiesDBList.do?cid=01](http://www.jst.re.kr/jejustudiesDBList.do?cid=01))

19 공주대 공주학연구원 <공주학아카이브> ([kjha.kongju.ac.kr](http://kjha.kongju.ac.kr))

20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아카이브> ([www.isi.or.kr/study2/archive/index.php](http://www.isi.or.kr/study2/archive/index.php))

21 강원학연구센터에서 마련하고 있는 강원학아카이브의 개요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정지연,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인문과학연구』 62,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9 참조.

22 춘천문화원 <춘천디지털기록관> ([cc-archives.or.kr](http://cc-archives.or.kr))

개인 소장 기록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서 2021년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문서 515건, 박물관류 1,873건, 고신문 8,589건, 도서관행물 392건, 조사보고서 330건, 영상 620건, 전자책 465건 등 총 1만 건을 상회하는 자료가 두루 망라되어 있어,<sup>23</sup> 춘천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강원 지역은 2010년대 이래 지역 자료의 집적 및 디지털화의 필요성에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준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해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강원 지역은 중앙 중심의 자료 집적·분석의 경향에서 일정하게 벗어나 고유의 자료를 그 나름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그간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고문서·고서의 실체와 현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새로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강원권 역사·문학·문화에 대한 인식 확대, 교육·연구의 활성화 및 자생력 확보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 3. 타 기관 사례 분석 및 향후 과제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권 고전적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그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DB 작업이 수행된 것이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 역시 일정하게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앞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수량·체계·고도화의 측면에서 더욱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는 타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비추어 강원권 고전적 디지털 아카이빙의 보완 및 개선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3.1. 타 기관 디지털 아카이빙 사례 소개

#### 3.1.1.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타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빙 사례로서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경북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교넷>의 사례이다.<sup>24</sup>

1996년 개원한 한국국학진흥원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웹 DB를 구축해 2007년부터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들 자료를 ‘고도서’, ‘고문서’, ‘일기류’의 세 카테고리로 구분하는데, 고도서에



기록유산의 향아 고도서

영남사림문집

번호	서명	지차	판사항	분류	번역문	영문정보	다운로드
1	가관선생문집(可觀先生文集)	조익(趙翼)	木源本	집부·별집류	서지/사제	문집상세/제	PDF
2	가문선생문집(可門先生文集)	성인(成仁)	木源本	집부·별집류	서지/사제	문집상세/제	PDF
3	가재문집(可宰文集)	권영(權榮)	권인본	집부·별집류	서지/사제	문집상세/제	PDF
4	가현문집(可顯文集)	신석우(申錫宇)	권인본	집부·별집류	서지/사제	문집상세/제	PDF
5	각양집(各陽集)	전유환(全維煥)	木源本	집부·별집류	서지/사제	문집상세/제	PDF
6	각재집(各在集)	허합(許洽)	木源本	집부·별집류	서지/사제	문집상세/제	PDF
7	각포집(各浦集)	이계원(李啓源)	木源本	집부·별집류	서지/사제	문집상세/제	PDF
8	간송당문집(簡送堂文集)	전영욱(田榮玉)	木源本	집부·별집류	서지/사제	문집상세/제	PDF
9	간송집(簡送集)	조영진(趙映鎭)	木源本	집부·별집류	서지/사제	문집상세/제	PDF
10	간우유집(簡牛遺集)	이인영(李仁榮)	木源本	집부·별집류	서지/사제	문집상세/제	PDF
11	간재문집(簡在文集)	변동일(邊東一)	木源本	집부·별집류	서지/사제	문집상세/제	PDF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www.ugyo.net)

23 2025년 10월 기준.

24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www.ugyo.net)

는 1339건의 영남 사립 문집이, 고문서에는 4만 여 건의 기록물이, 일기류에는 804건의 자료가 각각 제공되고 있다.<sup>25</sup> 이중 상당수는 자료의 이미지와 텍스트, 해제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전문 번역까지 서비스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더해 유교넷에서는 ‘유교문화지도’, ‘멀티미디어’, ‘e전시’, ‘체험관광’ 등의 탭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어, 기존 자료의 디지털 전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2차 콘텐츠 역시도 아울러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가장 이른 시기부터 DB 구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원 또한 충분히 받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아카이브 가운데 양적·질적으로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 3.1.2.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국학종합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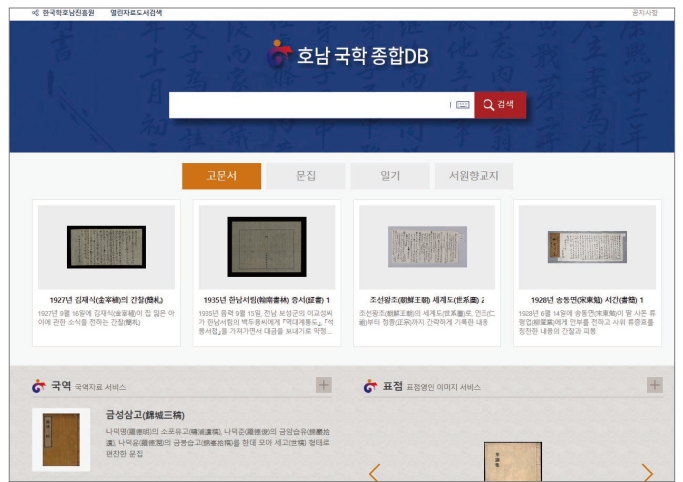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광주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호남국학종합DB>이다.<sup>26</sup>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 지역 민족 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호남한국학 진흥을 위해 2018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고전 자료의 수집, 가공, 대중화 등 지역 국학 관련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호남 기록문화유산의 학술적·문화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호남국학종합DB’를 새로이 구축해 2021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해당 아카이브의 자료는 크게 ‘고문서’, ‘문집’, ‘일기’, ‘서원향교지’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 수는 고문서 11,642건, 문집 133건, 일기 2건, 서원향교지 48건 등이다.<sup>27</sup> 호남근현대문집자료를 따로 분류해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호남 지역에 다수 분포되어 있는 서원·향교 기록을 별도의 향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아카이브가 표방하는 지역적 특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료의 상당수는 기본 이미지와 해제, 텍스트가 함께 제공되어 해당 자료의 상세한 면모를 살필 수 있으며,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출간한 국역서(8건), 표점서(31건)도 웹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비해 출범이 늦은 만큼 아카이브 작업의 진척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지만, 호남권 고전적 자료에 대한 본격적 집적·정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국학종합DB>(db.hiks.or.kr)

### 3.1.3.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청국학디지털아카이브>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충청권에서 마련하고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청국학디지털아카이브>의 사례이다.<sup>28</sup>

<sup>28</sup>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청국학디지털아카이브>(archives.ikc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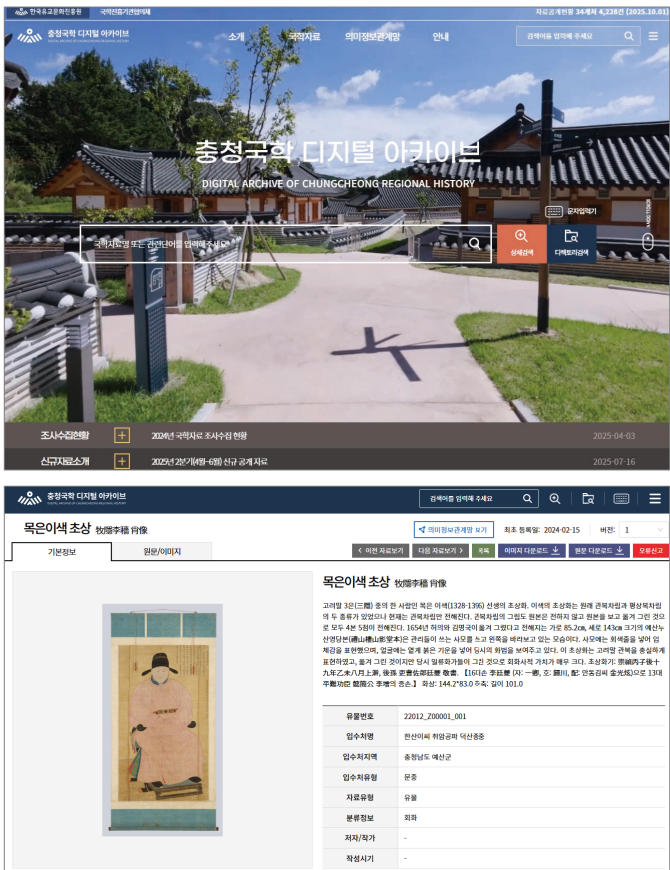
<sup>25</sup> 2025년 10월 기준.

<sup>26</sup>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국학종합DB>(db.hiks.or.kr)

<sup>27</sup> 2025년 10월 기준.

충남 논산에 위치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20년 이래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조사·수집한 충청권 국학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4년 2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 충청국학디지털아카이브에서는, 소장 자료를 ‘전적’, ‘문서’, ‘유물’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현재 전적 2,178건, 문서 1,988건, 유물 62건 등 총 4,228건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sup>29</sup> 충청 지역과 관련성을 띠고 있는 서화(書畵) 등의 유물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서비스 시작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이미지 제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텍스트·해제·표집·번역 역시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영남권·호남권에 대응하여 새로이 마련한 충청권 아카이브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청국학디지털아카이브>(archives.ikcc.or.kr)

이처럼 2010년대 중반 이후 특히 고조된 지역 문화 진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국 각 권역에서는 대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고전적의 체계적 수집, 디지털화, 텍스트화, 번역, 해제, 2차 가공 등의 작업을 활발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이들 기관은 울국국학진흥원의 강원한국학아카이브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DB 작업을 수행하였던 만큼, 구축한 고전적의 양이 기본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분류의 체계성, 자료의 가공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 3.2. 향후 과제

이와 같은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강원권 고전적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향후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고 어떠한 지향점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 이는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논해볼 수 있다.

첫째, 자료 구축의 내실화이다. 그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울국국학진흥원 <강원한국학아카이브>에서 여러 노력을 통해 강원권 고전적 자료를 조사·집적·공개하였지만, 시간·재원·인력 등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그것이 아직 충분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강원한국학아카이브>를 살펴보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자료의 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해당 자료 전체가 아닌 표지 포함 3~5면 내외 정도만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번역은 물론이거니와 텍스트·해제도 제공되지 않는 자료 역시 적지 않다. 다른 기관에서 이미 상당 수준으로 이룩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을 고려할 때, 확장된 디지털 자료 제공 → 해제 및 텍스트 입력 → 점진적 번역의 작업을 보다 활발히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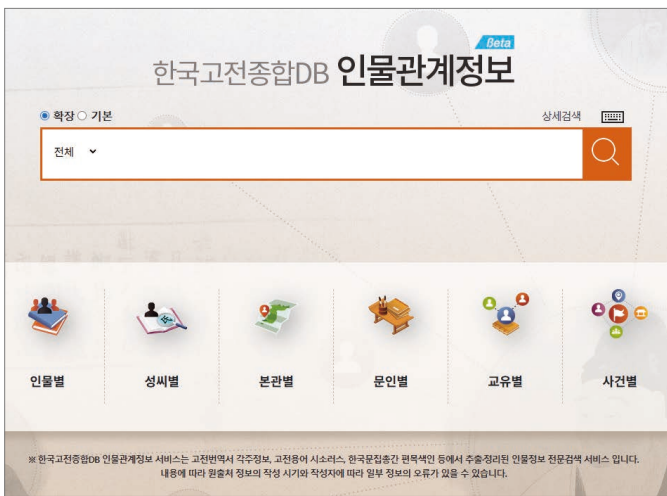
또한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와 <강원한국학아카이브>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는 사업 주체 및 제공 방식이 달라 상호 검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강원권 고전적 자료 허브 구축 또는 기관 협약 등의 과정을 거쳐

29 2025년 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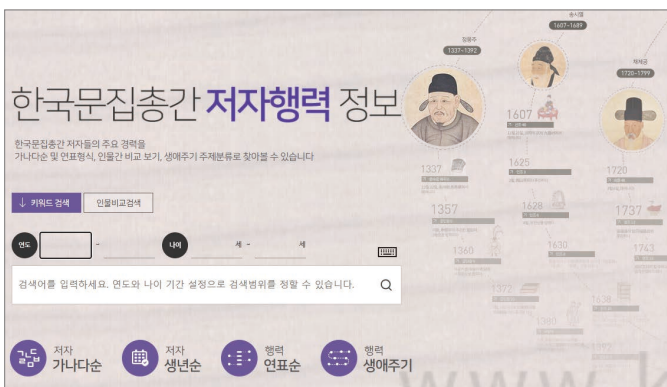
각 기관이 수행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며, 보다 용이한 자료 접근 및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체계성의 측면이다. 강원권 고전적 자료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분류·정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에서는 주요 유형 및 테마별(‘인물과 생활’, ‘경제 및 소통’, ‘학문과 교유’)로 조사 자료를 분류해 두었고, <강원한국학아카이브>에서는 ‘유산기’와 같은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 두었지만, 그 분류 체계가 다소 범범하며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된 자료의 수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박물관·기념관·문화원·고택 등 소장처별 분류, 시대(연대)별 분류, 강원 권역별 분류, 테마별 분류(유람·자연, 강원의 대표 문인과 가문, 근대한문지식인) 등 강원 지역의 자료를 보다 특색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분류법의 고안이 필요하다.

셋째, 확장성의 측면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인물관계정보>(db.itkc.or.kr/people)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저자행력정보>(life.itkc.or.kr)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유교문화지도/멀티미디어: 테마영상(www.ugyo.net)

종합DB)나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수집 자료의 이미지·텍스트·해제·번역 제공의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료에 대한 2차 가공 및 콘텐츠적 활용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지식지도, 유튜브(YouTube), 대중 콘텐츠 개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강원한국학아카이브의 경우 서비스 초기 단계인 만큼 양질의 자료 구축이 최우선에 놓이는 과제이겠지만, 한편으로 디지털 인문학,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아카이브의 성과를 대중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한국학아카이브>는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신규 아카이브로서, 상기 언급한 사항들은 향후 지역 차원의

관심과 안정적 지원 속에 점차 보완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즉 디지털 아카이브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내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시간’, ‘재원’, ‘인력’을 들 수 있다고 할 때, 앞의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인력’인데, 이는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해 두자 한다.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는 지역에서 고전적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우수한 외부 인재를 초빙할 수도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교육·연구를 위해서는 인력 육성의 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강원권 내 자체 교육을 통해 고전적·한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양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원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 자체적인 고전 교육 기관이 설치되어, 저마다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은 서울 본원 뿐만 아니라 부산·밀양, 전주, 대전 등 각 권역 주요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여 지역 한학 인재 양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12년 한문교육원을 별도로 개설하여 영남권 한국학 연구에 기여할 인재를 자체적으로 길러내고 있다. 근래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청계서당과 같은 한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강원의 경우 과거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지곡서당(芝谷書堂))에 한학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한국학 전공자의 산실로서 기능하였으나, 2010년대 초 운영이 중단되면서 권역 내 고전 교육 기관은 전무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물론 울곡국학진흥원<sup>30</sup>이나 춘천문화원<sup>31</sup> 등에서 한문 강좌를 일정하게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공자를 위한 전문

과정의 성격보다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양 강좌의 성격이 아직은 더욱 강하다.

지역 학문의 안정적 향상·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 대한 깊은 경험과 지식을 지닌 인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과거와 같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다시금 마련하여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강원권 각 대학에는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한문교육과 등 한국학 유관 학과가 존재하고 대학원 과정이 구비되어 있으며, 국학연구소, 강원문화연구소(강원대), 태동고전연구소(한림대) 등 다양한 연구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주체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여건 상 대규모의 전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문화원 또는 향교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안이 되었든, 공고한 커리큘럼 하에 유망한 인재들을 자체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교육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기초적인 학문 토양이 두터이 갖추어질 때, 여전히 발굴과 조명을 기다리고 있는 강원권 고전적 자료들이 한층 안정적 환경에서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 4. 나가며

이상 본고에서는 강원권 고전적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과 향후 과제 및 보완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1세기 들어 고전적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이는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앙 중심의 자료 집적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지역 문화 진흥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역 주도의

30 울곡국학진흥원 울곡서실(栗谷書室) (<https://yulgok.or.kr/pub/BookOffice.do>)

31 춘천문화원 문화학교 (<https://cccc.or.kr/study/introduce>)

아카이브 구축 작업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 각 권역은 그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고전적 자료를 자신들만의 공간에 정리·제공해 두고 있다.

강원 역시 이와 같은 경향에 발맞추어 지역의 고전적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강원대 국학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수행한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 구축 사업, 율곡국학진흥원에서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강원한국학아카이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전까지 '강원'이라는 이름 하에 발굴·정리되지 못 하였던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의를 지닌다. 다만 시간, 자원,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에 대한 고도의 가공 단계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자료 구축의 내실화', '체계성', '확장성'의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아울러, 그러한 연구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강원 지역 내 자체적인 고전 인력 양성 기관·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미 일상의 많은 부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디지털 사회는, 고전적 자료의 수집·정리·이용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방식과는 또 다른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아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언어 경관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고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수행한 선행 성과 정리 및 제언이 그와 같은 고민에 일정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고순영, 「공주 로컬리티 확립과 연구를 위한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 한국기록관리학회, 2020.
- 김영준, 「한국 호남지역 민간고문서 현황과 과제: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67, 전북사학회, 2023.
- 김정희·한동수, 「국내 지역학 아카이브의 디지털 활용 현황과 변화: 지역 역사문화 자산 플랫폼 설계의 관점에서」,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1, 한국건축역사학회, 2021.
- 서민희·지윤호, 「지방문화원의 지역학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춘천문화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7(5), 한국관광연구학회, 2023.
- 이상균, 「강원학 진흥에 있어 기초차치단체와 지역대학의 역할」, 『강원사학』 32, 강원사학회, 2019.
- 이정연·최효진,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지역학 아카이브 모델 연구: 제주학아카이브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기록과정보·문화연구』 10, 한국외국어대정보·기록학연구소, 2020.
- 정지연,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인문과학연구』 62,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19.
- 황은영, 「강원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 사업의 현황과 제언」, 『강원사학』 36, 강원사학회, 2021.

### 2. 기타 자료

- 강원학연구소 <강원학아카이브>(http://www.gangwonstudies.re.kr/portal/achievement/achievement01/boardList)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학문헌목록>(riksdb.korea.ac.kr)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kostma.korea.ac.kr)
- 공주대 공주학연구원 <공주학아카이브>(kjha.kongju.ac.kr)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www.nl.go.kr/korcis)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서울대 <규장각>(kyu.snu.ac.kr)
- 율곡국학진흥원 <강원한국학아카이브>(db.yulgot.or.kr)
-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아카이브>(www.isi.or.kr/study2/archive/index.php)
- 제주학연구소 <제주학아카이브>(www.jst.re.kr/jejustudiesDBList.do?cid=01)
- 춘천문화원 <춘천디지털기록관>(cc-archives.or.kr)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인물관계정보>(db.itkc.or.kr/people)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저지행력정보>(life.itkc.or.kr)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www.ugyo.net)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청국학디지털아카이브>(archives.ikcc.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dh.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jsg.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kostma.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cksm.kangwon.ac.kr)
-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국학종합DB>(db.hiks.or.kr)

---

**Abstract****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Digital Archives of Classical Materials in the Gangwon Region**

Chung, Yong-Gun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21st century, digital archiving efforts have been actively pursued, converting classical texts into digital form and making them available to researchers and the general public. Until the 2000s, this process was primarily centralized. However, since the 2010s, regionally-led archive construction efforts have also been actively pursued, driven by the need for regional cultural revitalization.

Gangwon has also been actively pursuing this trend, actively collecting and providing regional classical texts. Representative examples are <Center for Korean Studies Materials: Gangwon Regional Center>, spearheaded by the Institute of Koreanology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the <Gangwon Korean Studies Archiv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Yulgo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These projects are particularly significant in that they provide a unified collection of materials previously unexcavated and organized under the umbrella of “Gangwon.”

However, due to tim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constraints, these materials have not yet reached the advanced processing stage. Future improvements in the areas of “substantial data collection,” “systematicity,” and “scalability” will likely result in a more complete archive. Furthermore, to foster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it is urgent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lassical studies training institution and program within the Gangwon region.

**Keywords** Classical Materials in the Gangwon Region, Digital Archives, Institute of Koreanology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Yulgo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Center for Korean Studies Materials, Gangwon Korean Studies Archive.

---